

국산한약재 출하량 해마다 감소 추세 식품용 수입약재 반입은 갈수록 증가 일부 품귀 상한가시세 물동량은 부진

여름철 비수기를 앞두고 한약시장 골목들은 한가하기만 한데 국산 약재 시세는 일부 품목의 경우 물동량과는 무관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4월말 근당(6백g기준) 3만5천원에 거래되던 국산 산수유가 5월말 현재 4만5천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 천마도 3만8천원 대로 치솟았던 지난달 보다도 무려 7천원 단위가 더 오른 4만5천원 선이다. 반면 수입산 반입이 많았던 황기, 구기자, 일천궁등 국산약재는 큰 시세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며 오히려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실제 국산 물동량은 부진한 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

수입량 반입이 많은 품목에 해당하는 국산 약재의 대부분이 값싼 수입약재와의 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또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일부 국산 품목들도 시세만 높게 형성돼 있을뿐 실제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오히려 수입약재 반입과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6,7월 햇것 출하가 본격화될 박하, 인진, 익모초, 어성초, 삼백초등 풀잎약재들이 예년만큼의 수확량이 나올 경우 다소간의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미 출하가 마무리되어 가는 맥문동, 지실,

현호색 등의 약재는 생산량이 대폭 감소, 예년 이맘때보다 시세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산 약재의 생산량이나 재배 품목수가 해마다 갈수록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는게 국내 생약농업의 전반적인 현상. 특히 포공영 등 자연산에 의존해 오다시피 해온 약재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재배해온 현호색, 패모, 지모등도 수입산에 밀려 이제는 종자 조차 구하기 어렵게 된 실정이다.

두충 넘쳐나는 물량으로 계속해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두충 5월말 현재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4천5백원(상품), 3천5백원(중품), 2천원(하품) 선으로 보합세. 바닥세 때문인지 한창 햇것이 출하돼 나올 무렵임에도 작업물량이 거의 없어 산지에서의 출하량도 부진한 편이다. 두충 시세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듯.

산수유 햇것 수확시기까지는 앞으로도 4,5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산수유 시세는 얼마나 더 상승곡선을 그려갈 것인지 숨가쁘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4만5천원선, 중품이 4만원선으로 지난해 이맘때 시세인 2



▲ 대구 약령시 도매시장.

만6,7천원(상품) 보다 무려 2만원선이나 폭등한 셈이다. 그러나 시세만 높게 형성돼 있을뿐 실제 물동량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가피 산불로 인한 입산금지 영향으로 자연산 채취에 의존해 온 오가피의 수확량이 뜸해지면서 물동량 귀하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막오가피 근당(6백g기준) 시세는 지난 4월말 시세인 3천원 보다 다소 오른 3천5백~3천8백원 선이다. 원오가피는 물동량 귀.

오미자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 4월말 당시 근당(6백g기준) 2만원 선이던 오미자가 5월말 현재는 근당 2,3만원에도 물량이

없는 형편. 반면 수입산 오미자는 시중에서 2,3천원선, 하품은 2천원 미만에도 유통되고 있다고. 중국에서의 오미자 물동량도 그리 충분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햇것이 출하돼 나올 시기인 10.11월까지는 상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맥문동 해가 갈수록 국산 맥문동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맥문동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시세폭등 영향으로 재배 면적도 예년비 늘었다지만 봄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 올 수확량도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 출하량도 적고 알도 잘라 상품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평이다. 1만1천원 까지 거래되던 청양산 거심이 매기가 없는데다 햇것 출하기를 의식 7천5백원 선까지 내렸다가 햇것 물량이 많지 않자 다시 오름세. 5월말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1만원(거심), 9천원(막막)선에, 밀양산은 1만2천원(거심), 1만원(막막)선이다.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 앞으로 다소 오름세 전망.

지실 지금 한창 수확기를 맞고 있는 지실이 작년비 3천원 폭 오름세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영천시장에서 6,7천5백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던 소지실이 5월말 현재 바닥에서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것. 지실은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애지실, 소지실, 중지실, 각지실, 노지실로 나뉘어 각각 유통되며 상품에 따라 시세차도 크다. 꽃 떨어지고 나서 맨처음 수확하는 애지실은 근당(6백g

기준) 1만원선, 그 다음 수확물인 소지실은 근당 9천원, 중지실은 5,6천원, 굵은 지실을 절단해서 말린 각지실은 3천5백원, 탕자처럼 누렇게 익은 노지실은 근당 1천5백원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때문인지 작년보다 3천원 폭 오른 시세에도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햇것 출하기임에도 시세는 더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포공영 값싼 수입약재 영향 때문이듯, 자연산 채취에 의존해 오고 있는 포공영 출하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햇것 출하가 거의 끝난 5월말 현재 포공영 시세는 근당(6백g기준) 2천7백원(통), 3천원(절) 선으로 1천7,8백원 선이던 지난해 햇것 출하기 때보다 대폭 오름세. 지방에서도 2천3백~2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부자 지방에서도 근당(6백g기준) 5천~5천3백원 선에 거래될 만큼 시세가 치솟다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한 상태.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향부자 상품 도매시세는 근당 5천5백원 선이다. 그러나 알이 고르지 않고 색이 깨끗하지 않아 상품은 그리 좋지 못한편이라고.

현호색 햇것 출하시기임에도 5월말 현재 현호색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9천원(통), 1만원(절) 선으로 4월보다 오히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바닥에서도 8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작년 햇것 출하기 시세가 근당 6천~6천5백원 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3천원 폭으로 경총 뛰어 올랐다. 지난해 약 5만원 가량 수확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호색이 올해는 지난해 생산량의 3분의 1에도 못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시세도 다소 오름세 전망되고 있다.

황기 국산과 비슷한 형태로 대량 반입돼 와 시중 유통되고 있어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황기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6년근 4만원, 3년근 3만원, 1년근 1만원 선으로 보합세.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산 황기는 국산과 혼용돼 8,9천원 선에 절단해서 9천5백원 선에 국산보다 낮은 시세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고.

(문정희)

갈근차 개발, 농가소득원 기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 안정작용과 독성해소를 위해 각종 약초가 배합된 이 침차 역시 추출에서부터 멸균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기가 이용돼 매우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정신적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건강식품으로 널리 음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과 한약초를 이용한 갈근차가 개발돼 시판에 들어감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 농업기술원 진안속근 약초시험장(장장 오동훈)에 따르면 지난해 원광대 의약자원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갈근차 개발에 들어가 생약재료가 첨가된 건강음료인 장수 갈근차를 상품화시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산지에 널리 자생하

고 있는 취과 한약초를 이용하여 제조된 이 갈근차는 만삼과 백출, 복령, 그리고 감초등 다양한 한약초가 가미돼 소비자들의 기호에 제격인데다 건강음료로도 널리 이용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기호에 안성맞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갈근차는 정선된 취과 만삼등 각종 생약재료가 첨가돼 체질상 인삼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제조된 것은 물론 숙취해소 및 소화에 약효가 뛰어난